

# “조선 최초 모더니스트 이덕무 시와 삶에 매료”

이덕무 시 128편 번역 '시의 온도' 펴낸 한정주 고전연구가 '조선 최고의...' '문장의 온도' 등 3권 발간 '이덕무 마니아' 신분 등 차별 뛰어넘는 삶 추구 해 '광주정신'과 일맥상통

‘조선 최초 모더니스트’, ‘조선의 국풍(國風)’, ‘책만 읽는 바보(간서치·看書癡)’... 바로 영정조 시대 활약한 조선 최고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이덕무(1741~1793)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독한 독서 편력이 말해주듯 문장에 대한 열정, 탐구 정신은 당대 최고였다.

이덕무의 삶과 철학을 흠모해 ‘이덕무 마니아’라고 자처하는 이가 있다. 바로 역사연구회 회원(雷龍齋) 대표인 한정주 고전연구가. 역사평론가인 한 대표가 최근 이덕무의 시 128편을 번역한 ‘시의 온도’ (다산북스)를 펴내 눈길을 끈다.

“가난에 굴복하지 않는 이덕무의 삶에 매료됐습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빈곤 뿐 아니라 서자라는 신분차별, 강고한 유교적 질서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덕무를 주제로 세 번째 책을 펴내게 된 데 대해서도 한 대표의 철학이 있었다. 한 대표의 “나는 어떤 글에서도 찾지 못한 삶의 방향을 이덕무의 시에서 찾았다”며 “무엇보다 이덕무는 당시 성리학적 규범의 문장을 버리고 개성적인 조선의 시를 썼던 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고흥 출신 한정주연구가는 광주 석산고와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인문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이덕무 관련 책을 모두 세 권이나 펴냈다. 이덕무의 문장과 학문, 지식을 망라한 ‘조선 최고의 문장 이덕무를 읽다’, 주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엮은 ‘문장의 온도’, 그리고 이덕무의 감성과 느낌, 생각을 담은 ‘시의 온도’가 그것.

한 대표의 “이덕무가 추구했던 가치와 지향을 연암 박지원의 소설 ‘예덕선생전’을 예로 들었다. 소설은 분노를 수거해 나르는 이덕무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야기다. 소설 속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사대부와 교류하지 않고 비천한 ‘똥장군’과 사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박지원은 하는 일은 불결하지만 삶은 향기로운 이가 있는가 하면, 신분은 지체 높으나 삶 자체는 추악하게 이를 데 없는 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최근 책을 펴낸 한 대표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며칠 전에도 광주를 다녀왔는데 무등산에도 갔다”는 익숙한 남도의 역량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특유의 말씨에서는 오랫동안 고전을 공부하고 글을 쓴 이의 담담함과 깊이가 느껴졌다. 한 대표의 “이덕무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詩)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그에게 있어 시 쓰기는 세상 모든 존재와 대화하는 방법이자 세

상 모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통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덕무를 주제로 세 번째 책을 펴내게 된 데 대해서도 한 대표의 철학이 있었다. 한 대표의 “나는 어떤 글에서도 찾지 못한 삶의 방향을 이덕무의 시에서 찾았다”며 “무엇보다 이덕무는 당시 성리학적 규범의 문장을 버리고 개성적인 조선의 시를 썼던 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덕무의 시를 번역해 '시의 온도'를 펴낸 한정주 고전연구가. <한정주 제공>

늘에도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책에는 ‘여름날 병들어 누워’, ‘천안 농가에서 쓰다’, ‘시인과 궁핍’, ‘시와 여행’ 등 이덕무의 시를 한 대표의 시각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각각의 시는 ‘동심, 일상, 개성, 실험을 키워드로 한 조선 문장가의 감성과 사유’가 번뜩인다. 그렇다면 한 고전연구가는 어떻게 역사평론과 고전 공부에 매진하게 됐을까.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일본 근현대사를 공부하며 메이지 유신이 한국의 근현대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학에 진학해 좀더 역사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을 출판사에 있던 지인들이 전공 분야를 살려 역사나 인문학에 관한 책을 써보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한정주 연구가 펴낸 시와 맞물리면서, 그가 펴낸 책들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진로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는 분야가 바로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이다. 그러다 이덕무에 빠져든 것은 18세기 지식인 그룹, 박지원·박제가·홍대용 등과 같은 북학파 실학자들의 지적 편력에 매력을 느끼면서였다. 북학파들은 청나라 외에도 일본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쓴 남학파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청나라 외에도 일본을 통해 서양을 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 이후 모든 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그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게 됐다. 86년 가두시위 당시 연행돼 4개월여 간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사회운동의 가치, 노동운동의 가치가 현실과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의반 타의반 운동권과도 거리를 두게 됐구요. 그 즈

앞으로 조선과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서양 지식인 어떻게 변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동서양의 지성사, 문명사를 연구하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이덕무의 삶과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책으로 펴낼 생각입니다.”

## 광주시민인문학 ‘어르신 Ship, 재생 프로젝트’ 강좌

인문학 카페 노블서...4개 세션

광주시 평생교육원이 주최하고 광주시민인문학이 주관하는 ‘어르신 Ship, 재생 프로젝트’ 강좌가 3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펼쳐진다. 모두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의 주제는 ‘어르신’을 매개로 한 관계, 리더십 등을 다양하게 고찰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는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서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각각의 세션은 ‘관계의 어르신 Ship-

몸과 정신의 상호작용에 대해’, ‘근대 질서의 탄생과 여성의 리더십’, ‘지역공동체와 가부장 문화’, ‘공동체 특강-소통에 대해’로 구성돼 있다. 명혜영 박사(일문학), 서명원 박사(철학), 김봉국 박사(사회학)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 선착순 30명에 한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코로나 여파로 강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SNS 홍보단 ‘가봄’ 모집



한국관광공사가 광주·전남지역을 알릴 2020 SNS 홍보단 ‘가봄’을 모집한다. 사진은 담양 소재의 모습.

한국관광공사가 광주·전남 구석구석을 알릴 홍보단을 모집한다.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태호)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0 SNS 홍보단 ‘가봄’ (별칭 가봄미)을 모집한다. ‘가봄’으로 선발되면 12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취재하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을 알리는 미션을 수행한다. 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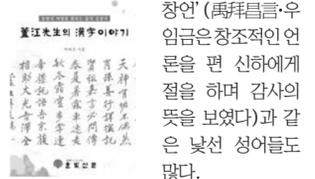
사업이나 팸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SNS를 운영하고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휴)학생 및 일반인으로 SNS 영향력이 클수록 우선선발 대상이 된다. 3월 8일까지 지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3월12일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재 기자 ej621@kwangju.co.kr

## 윤리·시사 등과 연계해 사자성어 풀어...유학자 심상도 답아

노강 박래호 선생 '노강선생의 한자이야기' 펴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 훈장으로 청절당에서 사서삼경을 강의하고 있는 노강(盧江) 박래호 선생이 ‘노강선생의 한자이야기’를 펴냈다. 책은 박씨 종보인 한빛신문에 ‘한자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묶은 것으로 ‘동방의 명령을 밝히는 삶의 길잡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저자는 윤리와 도덕, 정치와 시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심 사항 등과 관련한 솔직담백한 생각을 사자성어와 결부해 풀어냈다. 특히 13년간 문중행사, 향교나 서원, 공무원 청렴 교육 등을 진행하며 호남의 선비로서 유학자로서 느낀 심상도 담담히 기술돼 있다. 특히 익숙한 사자성어도 있지만 ‘우배



산사 중건비문, 광주 봉산재 중건 상량문, 회재선생 열사 봉안문, 청심당 심경순

묘비문, 호경장학회 서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수 글들이 실려 있어 옛글의 향기를 접할 수 있다.

한편 박씨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축간사에서 “노강(盧江) 선생의 한자이야기는 자칫 무너져 내리기 쉬운 오상(五常)의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 주고 근본(根本)을 돈독히 해주고 있음에 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되기를 많은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에 150회에 걸쳐 연재된 글이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도서출판 창비 ‘재미있다! 어린이 연극’ 시리즈 출간

도서출판 창비는 연극이 낯선 어린이를 위한 친절한 연극 안내서 ‘재미있다! 어린이 연극’ 시리즈를 출간했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됐으며 제1권은 안내 해설서 진행형 작가의 ‘우리 같이 연극 할래?~어린이를 위한 연극 길잡이’이고 나머지 세 권은 희곡집이다. 첫 권은 어린이가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연극 가이드북에 초점을 맞췄다. 희곡을 읽는 즐거움과 공연의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다. 나머지 3권은 모두 희곡집이다. 진행민이 쓴 희곡 ‘옛날옛날 어느 마을에-10분

연극’, 오세혁의 ‘이상한 게임’, 김중미의 ‘노랑이와 백곰’이 각 권에 실렸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연극 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언어 기능, 음악 활동, 신체 활동이 통합된 인문학적 교육이 연극을 매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배해장국, 갈배탕, 육개장, 곱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우육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 향촌

서구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 한우, 생선김밥,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단체손님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

#### 우영생기원

동구독립로 282-10(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공학, 태일, 도인양성 각분야개인지도 ☎ 062)236-2655, 010-3646-2977

####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

#### 우리부페

남구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운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식대장부 거래가능) ☎ 062)381-0066, 010-3085-0140

####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차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2-3454, 010-2106-0424

####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ген, 철구조물창고, 차량방,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 남약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오양빌딩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 061)285-0444

####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망)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각분야개인지도 ☎ 061)334-0088

####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 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 ☎ 061)333-4514, 010-3620-7268

#### 고전방

동구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 석당화랑

동구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공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 초대화랑

동구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박당화랑

동구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 신신예술의집

동구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